

‘악’ 김선빈 또 부상 이탈…KIA, 끝나지 않는 악몽



김선빈, 왼쪽 종아리 근육 손상…2주 후 재검진
나성범·위즈덤도 없어 방망이·수비 모두 ‘비상’

KIA 타이거즈의 부상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김선빈이 왼쪽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다시 또 재활군이 됐다.

KIA는 22일 KT위즈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엔트리 변화를 줬다. 내야수 김선빈과 외야수 최원준 그리고 좌완 김기훈이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들을 대신해 내야수 윤도현, 외야수 김석환, 좌완 최지민이 콜업됐다.

김선빈은 부상으로 인한 말소다.

전날 KT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던 김선빈은 3회말 수비 때 홍종표와 교체됐다.

왼쪽 종아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김선빈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다.

김선빈은 지난달 5일에도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18일 복귀했다. 김선빈은 복귀전에서는 1루 진루 과정에서 베이스 커버를 들 어온 두산 내야수 박계범과 충돌해 입술 안쪽에 찢 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다.

다시 또 종아리에 문제가 생긴 김선빈은 휴식을 취한 뒤 2주 후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KIA는 시즌 개막과 함께 끊이지 않는 부상에 신 음하고 있다.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김도영을 시작으로 박찬호(무릎), 김선빈(종아리), 광도규(팔꿈치), 박정우(어깨), 나성범(종아리), 위즈덤(허리), 김건국(종아리)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광도규는 22일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시즌 을 일찍 마무리했고, 나성범과 위즈덤도 여전히 자 리를 비운 상태다. 여기에 지난 8일에는 우완 활동

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악재 도 발생했다.

개막 엔트리와 비교하면 4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여기에 우승 주역들의 부진도 뼈아프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최원준의 이름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최원준은 21일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했지만 1회말 수비 도중 교체됐다. 최원 준의 아쉬운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졌고, KIA는 승 부를 뒤집지 못하고 1-3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 롤러코스터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 준은 지난 5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2군에서 재 정비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5일 1군에 복귀한 최원준은 17일 두산 과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홈보살과 결승타를 장식 하기도 했지만, 이후 8타석에서 침묵했다. 답답한 타격 속 수비 집중력까지 떨어지자 이범호 감독은 1회 교체와 엔트리 말소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김기훈도 ‘좌완 고민’에 빠진 마운드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광도규가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무리한 가운데 최지민의 제구 난조가 계속되면서 KIA는 ‘뒷심 싸 움’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불펜 위기가 기회라 했지만 김기훈은 4경기에서 2.1이닝 6피안타 2볼넷 1실점을 기록하는 등 인상 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시 한번 부상 악재를 만난 KIA는 퓨처스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낸 최지민을 주목하고 있다.

영점 조율에 나섰던 최지민은 퓨처스 리그 두 경 기에서 3이닝을 소화하면서 1피안타 2탈삼진 무실 점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1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종아리 근육 통증으로 교체됐던 김선빈이 근육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스마일 점퍼’ 우상혁·‘올림픽 금’ 나딤…육상 스타 구미서 만난다

27~31일 아시아육상선수권

파키스탄 육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 에 건 아르샤드 나딤이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 회에 출전한다.

아시아 장대높이뛰기 선수 중 처음으로 6m 벽 을 돌파한 아르니스트 존 오비에나(필리핀)는 이미 구미에 도착했다.

27일부터 31일까지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리 는 2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는 43개국에서 1197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파리 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챔피언 기타구치 하 루카(일본), 올림픽 남자 창던지기에서 금 1개, 은 1개를 수확한 니자르 초프라(인도) 등 몇몇 핵 심 선수가 불참하긴 했지만, 아시아 육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구미 에 모인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나딤이다.

나딤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남자 창던지기 결선 에서 92m97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인도 영웅’ 초프라 는 89m45로 나딤에 이어 2위를 해, 올림픽 2연패 에 실패했다.

오비에나는 아시아 최초로 ‘6m 클럽’에 가입한 점퍼다.

오비에나는 2023년 6월 노르웨이 베르겐 점프 챌린지 남자 장대높이뛰기 경기에서 6m00을 넘 어 우승했다.

2022년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 세계선수권에 서 동메달을 따내며 자신이 작성한 5m94를 6cm 높은 아시아 신기록도 세웠다.



우상혁(28·용인시청)이 지난달 22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2m30 1차시점 점프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비에나는 아시아 역대 최고 장대높이뛰기 선 수로 꼽힌다.

한국은 남자 43명, 여자 41명, 고교 유망주 7명 (남자 4명, 여자 3명), 코치진 17명을 합쳐 108명 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한국에도 세계적인 선수가 있다.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은 2021년 도 코 올림픽 4위(2m35),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세계실외선수권 2위(2m35), 2023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우승(2m35)의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올해에는 세계실내선수권(2m31)과 이 종목의 전설인 무타즈 예사 바르심(카타르)이 주최한 초 청 대회 왓그래비티챌린지(2m29) 등 출전한 4개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우상혁은 아시아선수권 디펜딩 챔피언이다.

2023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에서 2m28을 넘고 우승했다.

우상혁은 구미에서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아시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더 많은 메달 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세계 1위’ 시비웅테크, 코리아오픈 테니스 출전

9월 13일 첫 서울 방문

이가 시비웅테크(5위·폴란드)가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 에 출전한다.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 “시 비웅테크의 올해 대회 출전이 확정됐다”고 발표하 며 “올해 코리아오픈 총상금은 2024년보다 13% 인상된 112만9000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WTA 투어 단식 세계 1위를 지낸 시비웅테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피 폰을 3년 연속 우승한 톱 랭커다.

2020년 프랑스오픈과 2022년 US오픈에서도 우승한 시비웅테크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총 다 섯 차례 정상에 올랐다.

시비웅테크는 코리아오픈 조직위원회를 통해 “처음 서울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고 설렌다”며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한국 팬들도 만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비웅테크는 원래 지난해 코리아오픈에도 나 올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 개인 사정으로 출전을 철회했다.

올해 코리아오픈은 9월 13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펼쳐진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더 많은 팬이 세계적인 선수 들의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주중 야간 경기를 편성했다”며 “다양한 이벤트와 식음료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코리아오픈은 tvN 스포츠에서 센터 코 트 전 경기를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